

## A Companion to Economic Geography

Sheppard, E. and Barnes, T.(eds.), 2000, *A Companion to Economic Geography*, Oxford: Blackwell.

백 영 기\*

이 책은 최근 세계화 추세에 따라 급속히 변화하는 경제를 이해하는데 경제지리학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발간되었다. 인간생활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경제변화는 경제적 부분만이 아니라 지리적 성격을 근본적으로 갖고 있다. 그러므로 수없이 관찰되는 다양한 경제현상을 나타내고, 종합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지리적 사고를 습득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 책에서는 경험적 발견보다는 경제지리학 안에서 최근에 거론되는 개념과 이론이 초점이 되고 있으며, 미래의 경제지리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논제들이 다양하게 전개되면서 이론적인 탐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책은 30개의 장으로 구성된 비교적 두꺼운 저서로서 편집자인 Sheppard와 Barnes를 포함하여 경제지리학 분야의 중심적인 학자 29명이 참여하여 만들어졌다. 경제지리학을 예술의 성격으로서 미화시켜 소개하는 편집자들의 글을 제외한 29개의 장이 5개의 단원으로 구분되어 소개되고 있다. 첫 단원의 주제는 경제지리학의 세계(worlds of economic geography)이다. Barnes는 경제지리학이 하나의 교과목으로 정착되는 19

세기말부터 계량혁명 이전까지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되어 왔는지를 소개하기 위해 역사적 논의를 진행하면서 경제지리학이 인간 사고와 행위의 발명체라고 주장한다. 3장에서 Plummer는 전통적 입지이론에 근거한 모델화는 복잡한 경제경관의 변천을 이해하는 데 분명한 한계로 거부될 수 있지만, 전통적 입지이론을 초월하여 경제경관에 작용되는 복잡한 역동성을 반영할 수 있다면, 경제지리학에서 모델링에 의한 접근방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Swyngedouw는 마르크스적 접근방법이 지리학에 많은 논란을 제기하며 활기찬 논쟁을 제기하고 있으며, 나아가 인간을 위한 지리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Oberhauser는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노동력에서 여성의 지위와 일터에서의 그들의 경험에 대해 논의하는 페미니스트의 접근방법이 공간경제 과정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페미니스트 지리학이 선진국은 물론이고 제삼세계 국가에서 흔히 보이며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공식경제가 무시되고 저평가되는 점을 날카롭게 통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Martin은 지난 20년 동안 경제학, 사회학,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정치학 등의 사회과학에서 성장하고 있는 제도주의 접근방법이 최근 경제지리학에서 수용되면서 이론과 경험적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기회가 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경제지리학 접근방법의 변화를 제도주의로의 전환(*institutional turn*)이라 부르면서, 이 접근방법이 경제지리학에 기여하는 면에 대해 흥미롭고 심도 있는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 이 단원을 종결하는 7장에서 Gibson-Graham은 담론을 만들고 변형하며, 새로운 주제와 상상적 가능성을 창출하는 연구를 위한 지식의 포스트구조주의 전망에 대한 의미를 탐구하며, 이러한 접근방법이 지리연구의 새로운 모델 개발의 잠재성을 갖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6개의 장으로 구성된 둘째 단원은 생산의 영역(*realms of production*)에 대해 논의한다. 8장에서 Walker는 경제지리의 중심에 있는 생산활동이 수많은 공간과 장소에서 변화 조정되는 방식을 개관하면서, 생산의 지리는 다양성과 불안정성이 필연적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지속적 변화를 다루는 경제지리학은 도전적이며 참신한 탐구가 항상 필요하다는 것이다. Peck은 경제지리학이 과거 중추적인 생산요소로서 노동을 간주하는 사고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환경에서 사회적으로 구성 변화되는 노동시장의 성격으로 관심이 전환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노동의 지리(*the geography of labor*)의 변증법적 성격을 입증하며, 대량생산과 유연적 생산체계라는 단순한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날 것을 제의한다. 노동의 지리가 재편될 때마다 모순과 반대성향이 작용되면서 다양한 조절양식이 생산성과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적용된다고 한다. 따라서 노동시장은 자본축적을 위해 생산재생산하는 독특한 장소로서 난잡하고, 우연적이며, 다양한 차원

의 성격을 보인다는 것이다. Amin은 90년대 초반의 산업지구 생존에 대한 논쟁이 최근 산업지구 변천 과정에 대한 논쟁으로 전환되는 역사를 약술하면서, 열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산업지구 성격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그는 산업지구 연구는 지역발전과 지역정책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게 기여할 수 있다고 단언한다. 11장에서 Sheppard는 경쟁에 관한 담론에 도전하고 분석하는 편집 목적의 일환으로, 지리적 전망이 전통적인 경제학 자체를 의문시하고, 보이지 않는 손의 적용을 문제시 할 수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이어지는 장에서 Sunley는 경제학의 방법론적 가정을 의문시하면서, 상호관련이 되는 경제와 사회경제적 과정의 성격을 분석하는 데 있어 지리와 지리적 기법의 중요성을 약술한다. 이 단원은 Rigby에 의해 앞 장에서 다루어졌던 논쟁에 근거가 된 지리와 기술변화에 대한 조사로 맺는다.

자원의 세계(*resource worlds*)를 다루는 셋째 단원을 열고 있는 Hanink는 14장에서 시공간에서의 자원과 자원이용이 자리잡는 과정을 밝히면서 경제지리학 안에서 자원이 갖는 다양하고 독특한 위상을 보여주려고 한다. Page는 경제지리학 안에서 부수적 지위에 있었던 농업이 자원, 산업, 국가, 역동하는 지역발전과의 새로운 관계가 재인식되면서 경제지리 연구의 중심에 포함되고 있음을 상기시킨다. 경제관계와 경제제도의 사회적 맥락에 초점을 두는 농업지리의 연구가 정치경제학적 접근방법의 관심이 되는 지역성(*locality*) 연구와 일치하며, 따라서 농업지리에 대한 연구가 경제지리 이론을 철저히 조사하고 개발시키는 데 유익하다고 단언한다. Watt는 지난 30년 동안 환경문제에 대한 논의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정치생태학의 역사를 소개하면

서 전체적 윤곽을 그리고 있다. 그는 자원 이용과 통계의 형태를 조사하고, 건강한 환경과 지속적 삶을 위해 이들의 의미를 분석하는 개념적 도구와 이론적 주장을 정리하고 있다. 17장에서 Castree는 경제체계가 생태계 및 사회와 확고하게 얽혀 있는 점을 밝히면서, 오늘날 주도적 생산 체계인 자본주의경제에서 자연의 생산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경제지리학자들의 흥미가 어떻게 자연의 생산에 대해 커지고 있는 가에 대해 정리하고 있다. Hayter는 이 단원의 마지막 장에서, 주변지역에 있는 단일 산업자원에 의존한 도시들이 특화와 동시에 불안정한 운명에 처하는 성격을 규명하면서, 자원의 사회적 이용의 변화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넷째 단원에서는 경제지리학에서 다루어지는 사회적 동인(social agents)들을 광범위하게 논의 하면서 사회적 세계(social worlds)를 그리고 있다. 19장에서Gregson은 성(gender)에 대한 관심의 고조에 따라 경제지리학의 변방에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가정, 일, 소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가정-일 또는 가정-일-소비가 섞여서 나타나는 현상의 지도화를 모색한다. Sadler는 계급은 사회변혁을 설명하는 틀의 중심적 요소로서 경제지리학에서 설명적 개념으로 부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Harod는 노동조합이 중요한 지리적 동인으로서 어떻게 그려질 수 있는지 보여줌으로써 경제경관의 형성을 탐구하는데 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Painter는 국가, 지배, 경제지리 사이의 변하는 관계를 조사함으로써 경제경관에 대한 이해를 위한 광범위한 사회적 맥락을 전개하고 있다. 이 단원은 경제지리 내에서 동인들과 그들의 역할 사이의 연계에 초점을 둔 23, 24장으로 맺는다.

Schoenberger는 23장에서 문화적 사회적 관계에 정착된 기업에 초점을 두고, 시공간에서 권력관계의 역할을 강조한다. 또한 사회적 과정과 압력에 따라 기업 전략이 어떻게 변해야만 되고, 변할 수 있는지 정리하고 있다. 24장에서 Mitchell은 사람, 정보, 자본의 초국가적 움직임이 촉진되는 과정에서 민족 네트워크(networks of ethnicity)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 단원은 움직임에 초점을 둔 순환의 공간(spaces of circulation)에 관한 것이다. 25장에서 Grant는 교역을 통해 복합적 세계적 모자이크(complex global mosaic)가 창출된다고 언급한다. 그는 교역의 지리를 역동하는 개별 상품의 지리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만화경으로 취급하면서, 이를 설명하는 이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여기서 요구되는 이론 정립에 있어서 직면하는 세 가지 도전은 세계교역의 부문 구성 변화, 세계교역의 장벽, 정부와 기업의 역할과 관련된다고 정리하고 있다. Leyshon은 화폐와 재정의 지리에 대한 연구를 개관하면서 복합적 세계적 모자이크의 단면을 보여주며, 이 연구가 사회적 세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27장에서 Leitner는 노동의 국제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 지리,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등의 차원에서 해당지역 간의 복잡하게 얽힌 연계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덧붙여 이주 네트워크, 이주자의 활동과 경험에 대한 연구가 노동의 국제이동을 이해하는 데 요구된다고 하였다. Hanson는 과거 경제지리학의 핵심이 되었던 교통지리학의 위상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교통지리 연구가 거리의 마찰에 대한 관점을 넘어서 분석의 폭을 넓혀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Warf는 오늘날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지식, 정보, 통신의 생산에서 원격통신의 역할과 영향에 대해 언급하

면서, 원격통신의 발달로 경제경관을 구축하는 방식이 변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원격통신이 공간과 장소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철저하게 탐구하는 연구가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이 책을 마무리하는 30장에서 Webber는 국제정치경제와 지리연구의 의미를 정리하면서, 이 책의 목적으로 언급되는 다양성을 보여주기 위해 일조하고 있다.

끝으로 이 책을 소개하면서 아쉬운 점은, 세계 경제의 통합화 추세에서 야기되는 근본적 변화와 그에 연관된 광범위한 담론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 모두 영국 (10), 미국 (17), 캐나다 (1), 호주 (1) 등에서 활동하는 영미계 지리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비록 지리학 발전에 영미계 학자들의 역할은 인정되지만, 경제의 세계화 인식에 대한 논의를 이들 영어권 학자들에게만 국한시켰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책의 장점은 경제지리학 분야의 중심적인 학자들이 질문을 던지면서 독자들이 중요한 이슈에 대해 스스로 사고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각 장에서 논의되는 주제들이 대부분 잘 정리되어 있고, 관련 장들을 잘 묶어서 편집처리 하였다는 점은 높이 평가하고 싶다. 경제경관이 어떻게 형성되며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며 인식하는 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자 한 편집자의 의도가 잘 반영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우리가 누구이며, 그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통찰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책은 편집자의 의도처럼 경제지리학 분야의 안팎에서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자 하는 학생은 물론이고, 전문 교수들에게도 유용한 자산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2002년 12월 9일)